



싸우면서 세졌다... 무한경쟁이 낳은 기술의 진화

삼성 vs LG TV전쟁 승자는 '삼성·LG'

삼성전자와 LG전자간 TV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 단은 판매량으로 우위를 차지했지만, LG전자가 얻은 마케팅 효과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프리미엄 TV 시장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와 LG 전자 모두 승자라는 해석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미국 법인인 최근 베트남에 이어 미국에서도 삼성전자 QLED TV를 저격하는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올레드의 빛을 바라-LG 올레드 V S QLED & LCD(See The Light of OLED - LG OLED TVs vs QLED & LCD)'라는 제목이다.

LG전자는 영상에 올레드 TV 우수성을 설명하고, QLED TV가 LCD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

발광 소재를 사용한 올레드 TV와 LCD 패널에 퀀텀닷 소자를 추가한 QLED TV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앞서 LG전자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광고를 송출한 바 있다. 직접 QLED TV를 분해해 올레드 TV와 다른 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공정위에는 QLED TV를 '허위 및 과장광고'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은 오히려 QLED TV에 집중됐다. IHS마킷에 따르면 3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QLED TV 판매 대수는 전년(52만대)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16만대에 달했다. 올레드TV 판매량은 같은 기간 33만대로 오히려 전년대비 축소됐다.

삼성전자 QLED TV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올레드 TV가 여전히

잇따른 소송전·광고 디스전 소비자에 기술·상품성 각인

판매량으로는 삼성QLED '승' LG전자는 마케팅 효과 '톡톡'

가격이 높은데다가, 성능면에서도 장점을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가전 유통 업계 현장 관계자는 "올레드 TV와 QLED TV 기술을 구분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났다"면서도 "올레드 TV가 가격 경쟁력으로는 뒤쳐진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QLED TV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레드 TV 시장에서도 LG전자 비중은 줄었다. 3분기 올레드 TV 판매량 67만대 중 LG전자 점유율은 48.9%로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소니와 파나소닉 등이 올레드 TV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뒤처지게 됐다.

그럼에도 LG전자가 패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올레드 TV 시장 자체는 3분기 67만대 판매량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55인치 제품을 제외하면 아직 올레드 TV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켜가고 있다는 얘기다.

LG디스플레이가 올레드 패널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올레드 진영 확대는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QD 디스플레이'

레이'에 투자를 선언하면서 올레드 수요도 크게 늘었다는 전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대전'으로 '윈-윈'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여기에서 나온다. 삼성전자는 QLED TV의 상품성을, LG전자는 올레드 TV의 기술력을 더 알릴 수 있었고, 기술력 차이도 더 강조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일단 판매량에서는 우위를 가져갔지만, 내년에는 LG 올레드 TV가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시장을 두고 전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기술·마케팅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왼쪽부터)삼성전자 QLED TV, LG전자의 올레드 TV.

/각사

과학고 졸업생 '의대 진학' 막는다

서울시교육청-서울과학고 협의 "설립목적과 달라" 문제 지적에 교육비 환수, 시상 취소 등 조치

서울과학고등학교(교장 임규형)가 내년 신입생부터 졸업 후 의대에 지원할 경우 그동안 지원한 교육비를 모두 환수하고 교내 대회 수상 실적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과학고와 협의해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방안과 과학영재 학생의 이공계 진학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서울과학고가 과학영재 학교 신입생 상당수가 설립 목적과 달리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과학고 2019년 졸업생 130명 중 75명(77%)는 이공계열로 진학했지만 30명(23%)은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등 매년 졸업생의 20% 내외가 의학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 진학지도 강화와 의학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뉴스

열 진학 억제에 위해 진로상담을 강화하고 의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신입생부터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에 비해 더 많이 지원되는 교육비를 환수하고 교내 대회 시상 실적도 모두 취소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환수한다. 의학계 지원시 추천서도 받을 수 없다. 서울과학고 교육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3년간 1500만원 내외다.

아울러 신입생의 지역편중 현상과 입

시 사교육 과열 해소를 위해 16개 시도와 서울 25개 자치구 등 41개 단위지역별 1명 이내로 우선 선발하는 '지역 인재 우선선발 제도'를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2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선행 학습 효과를 배제하고 입시 사교육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문항 출제를 확대하는 등 신입생 선발 평가 내용과 방법을 지속 개선기로 했다. 올해부터 당해연도 평가 문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용수 기자 hys@

文 "예산안·민생법안 신속 처리" 당부

>> 1면 '文, 한국당 비판'서 계속

문 대통령은 "국가예산은 우리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며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정의용(왼쪽부터)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1차장, 김현중 2차장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

힘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소속으로 알려진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애도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